

기획

GS칼텍스 여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개관

# 1천억 '여수사랑' 결정체 남해안 문화예술 '요람'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을 이틀 앞둔 10일 여수시 시전동 망마산 자락, 여수 앞바다가 바라다보이는 이곳에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찾았다. 세계적인 시설과 품격을 갖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가 2년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 망마산 70만㎡ 1021석 공연장 등 2년공사 완공 박람회 기간 오페라·음악회 다채로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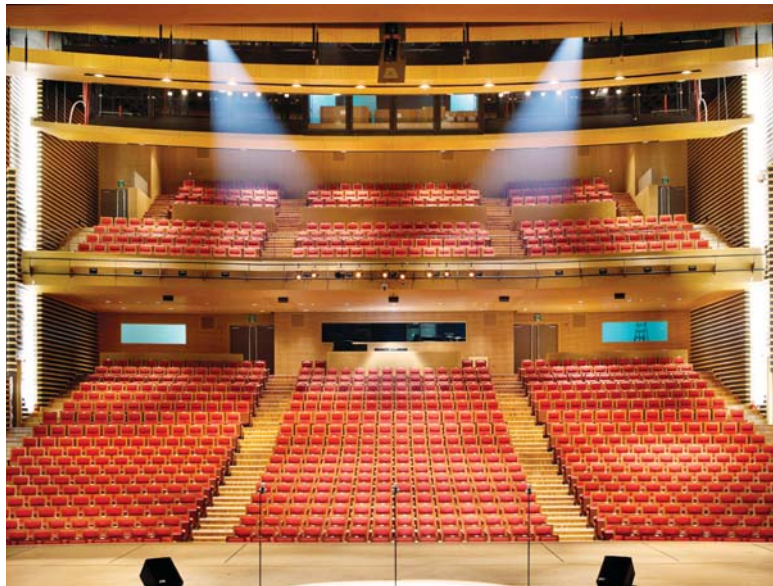
GS칼텍스(회장 허동수)는 10일 오후 2시30분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허동수 회장과 김충석 여수시장,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 김성곤·주승용 국회의원,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안호상 국립극장장, 이종덕 총무아트홀 대표 등 각계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GS칼텍스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바로 아낌없는 신뢰로 성원해준 지역사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여수시와 함께 예울마루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또 "예울마루를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남해안 문화예술의 중심체로 키워 여수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예울마루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GS칼텍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1000억원을 들여 건립한 것으로

바다를 품고 있는 망마산과 그 앞선인 장도 일원 70만㎡(약 21만평)에 조성됐다. 예울마루는 문화예술의 너울(파도)이 가득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란 뜻을 담고 있다. 파도·물결 등 건축형태와 어울리고 문화예술공원이란 장소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데다 접점 고려해 여수문화예술공원의 명칭으로 선정됐다. 예울마루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이 드러나지 않은 친환경 구조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건축공법이다. 프랑스의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예울마루는 지붕이 시작되는 지점인 망마산에서 계곡이 흘러나와 바다로 들어가는 물의 흐름을 연상케 한다. 페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지리적 여건을 반영해 예울마루의 주요건축물을 지하에 배치했다. 또한 냉·난방 에너지의 절감을 꾀하고, 건물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자연환경과 극적 조화를 추구했다. 예울마루의 '얼굴'은 최첨단 공연장 전시장이다. 망마산에 들어선

공연장은 1021석의 대공연장과 302석의 소공연장으로 구성됐으며 세계적인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갖췄다. 특히 초현대식 시설로 설계된 대공연장은 무대와 1층 객석 맨 뒷좌석까지의 거리가 불과 21m 밖에 되지 않아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할 수 있다. 예울마루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하다. 특히 예울마루의 모든 시설은 망마산과 가깝지만 어우러진 하나의 커다란 산책로다. 여기에 기획전시실과 에너지정보관, 전망시설, 야외무대(바닥분수), 해안산책로, 잔디고석정원, 바람의 언덕, 노을의 언덕 등이 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예울마루는 10일 오후 7시30분 개관기념 KBS 열린 음악회(5월20일 방송예정)를 시작으로 여수엑스포 기간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22일 여수시립합창단의 '제61회 정기연주회', 창작오페라 '손양원'(6월1~3일), 한·중 연합 오케스트라 연주회(6월9일), 창작오페라 '귀향'(6월14~16일), 창작가부악극 '오들레'(7월12~14일)는 여수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전시행사로는 개관 특별전 '배병우 : 대양을 향하여'(11~6월30일), 한·중·일 미술초대전(7월3~11일), 국제아트페스티벌(7월17~8월5일) 등이 마련돼 있다. /여수=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동부취재본부=정창화기자 chkim@



여수바다를 품고 있는 망마산과 장도 일원 70만㎡에 조성된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GS칼텍스가 지역사회 공헌 활동 차원에서 1000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관람석 1021석의 대공연장 내부.



'예울마루'는 전시실·홍보관·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설계자 도미니크 페로

## 인간·자연 조화 매진한 친환경 건축가



광주시 동구 구 시청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시골 오두막을 연상케 하는 아담한 정자를 만날 수 있다. 201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특별작품전의 하나로 설치된 광주푸리의 '열린 공간'(도미니크 페로 작)이다. 삭막한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가라는 건축가의 따뜻한 배려가 전해지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열린 공간'에서 느낄 수 있듯 도미니크 페로는 인간과 환경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친환경 건축가이다. 그가 설계한 건축의 특징은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특정 건축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자연과 주변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독창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건축은 자연이고 자연은 건축이 된다'라는 페로의 철학이 담긴 예울마루는 건축학도는 물론 일반인들도 한번쯤 둘러볼 만하다. 주요작품으로는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독일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이화여대 캠퍼스 ECC(Ehwa Campus Complex)가 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10일 오후 열린 '예울마루' 개관식.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 개관을 축하했다.

# 고흥의 새로운 랜드마크 " 거금대교 "

- 고흥교육지원청
- 고흥군 수협
- 농어촌공사 고흥지사
-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사
- 고흥신용협동조합
- 녹동신용협동조합
- 녹동새마을금고
- 고흥항운노동조합
- 그린해운(주)
- (주)거성건설
- (주)성진토건